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06:1)



금주의 기도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에 감사하게 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10호 2012년 11월 1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크리스천의 감사

“없을 때 더욱 감사하라!”

2012년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의미 통해 풍성한 감사 나눠야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며 미디어들이 단골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다. 추수감사절 날 가족친지들이 둘러앉아 먹고 맛있고 색다른 음식 만드는 법, 그리고 푸짐한 명절음식 즐기면서 살 안짜는 법 등이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자정부터 시작되는 최대 소풍 축제인 '블랙 프라이데이' 선전과 홍보로 온통 들쭉거린다. 한마디로, 먹고 싶은 욕심과 빼고 싶은 조바심 그리고 가지고 싶었던 가전제품이나 의류들을 미리 결정하는 그런 구매 욕구 사이에서 마음 편할 날 없는 계절이 찾아왔다.

1621년 초가를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가진 첫 추수감사 모임은 사실 먹고 마시며 물건을 구입하는 축제가 아니었다. 1620년 12월 엄동설한에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들에게 미국은 풍요의 땅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에서의 첫째 그들은 거처할 오두막 보다 7배나 많은 무덤을 만들어 혹독한 시련을 견뎌야 했다.

메이플라워에 함께 올랐던 어린이와 어른 102명 중 절반이 죽고 겨우 53명이 남은 첫 추수에 그들은 감격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미국 역사상 아마도 가장 가진 것 없었을 그들이 감사의 전통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의 참의미가 담겨 있다.

은 이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라는 플라톤의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적도 없다. 감사와 추수의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는 잃은 것 못 가진 것에 눈감고 가진 것을 보는 자세이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

서는 미래가 없다. 초라해서 더욱 값졌던 수확, 무엇보다 단지 살아있음에 감격하던 청교도들의 감사가 좋은 표본이다. 가족, 건강, 생명... 가진 복을 세어보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14면으로 계속)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제: 들오라 이스라엘! “Hear, O Israel”
생명의 말씀을 Word of Life to
자녀들에게(신 6:4-9) Our Next Generation!

▶ 일 시
2013년 4월 9일(화)~4월 18일(목) (9박 10일)

▶ 세미나장소
Ramada Jerusalem Hotel
Ruppin Bridge At Herzl Blvd., Il-91033, Jerusalem, Israel
Phone:972-2-6599999 Fax:972-2-6511824

- **참석대상**
1) 전 세계에 계신 현직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비**
세미나와 성지순례 9박 10일 숙박 등록비: **1400불**
- **항공료**: 별도로 개인부담
- **등록마감**: 2013년 2월 28일
- **등록신청**
- Online : 신청: <http://www.chpress.net>
- NY사무실: ny@chpress.net / Fax.718.886.0074
노선희 전도사: shknoh@gmail.com / TEL(718)886-4040
- LA사무실: la@chpress.net / Fax, 323.665.0046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 한국연락처: 설철호목사(schgil@hanmail.net)
Edunext Education Development
TEL. (02)583-9136~8 / Fax 588-0709

 2면 감사절 설교 김남수 목사(아가페장로교회)	 3면 2012대선 복음주의 패배... '문화전쟁' 본격화	 7면 성경적 신앙전수의 원리 (3) 김혜천 목사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본사방문 다민족 열린 음악회를 꿈꾸며...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	 14면 본사방문
--	---	--	---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3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3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3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3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신학의 신앙이 투철한 무후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3년 5월 17일(금) ~ 20일(월)
- 2) 고시 장소: The Westin Los Angeles Airport (310-216-5858)
540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5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야모소 9:11-15
(2) 신약 주해 - 마태복음 16:13-20
(3) 논문 제목 - 쥘기세포 연구 및 적용에 관하여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4) 설교 분문 - ① 신약: 누가복음 9:23-27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분문을 중심으로 설교원고교사를 치름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3년 8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3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7회 총회기간(5월 21일~23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상희 목사에게 속소를 예약할 것 5월 17일~21일까지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상희 목사 (Rev. Samuel Heo) / Email : sheo1004@hotmail.com
495 Morse Ave Ridgefield, NJ, 07657 / Cell : 201-981-0009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 송찬우 목사 (425)773-0504 (chansong_hase@hotmail.com)
- 2) 고시부 서기 : 허상희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3) 영어권 안내 :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최해근 목사 (267) 471-7777 (hankschoi@gmail.com)

총회장 : 김남수 목사 서기 : 이원호 목사 고시부 부장 : 송찬우 목사 고시부 서기 : 허상희 목사

감사 시

감사의 꿈



최세용 장로 (나성영락교회)

세월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무리들 마른 땅 밟고 뜬 꿈으로 온 종일 몸부림친다

그래도 단풍의 계절은 결실을 안겨주는 귀한 시간

높가에 살포시 내려앉은 낙엽의 흐느낌 들리지 않는가 깃가에 흐르던 세월의 교향악 피부에 스치는 애증의 감각들

오로라 빛보다 찬란한 풍경 앞에서 세월의 병풍에 그려진 사연들을 본다

해안선마저 무너뜨리는 용암의 폭발 폭풍우와 공포의 해일, 마른 땅까지 꺼져버리게 하는 오 무서운 지진의 공포, 증오의 역사가 뿔어대는 미움의 독설과 총탄들...

한 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월이여

텅 빈 마음에 이 가을 찾아온 단풍잎들만큼이나 감사가 풍성했으면

오늘도 나는 꿈을 꾸어본다.

감사절 설교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7편1-9)



김남수 목사

(KAPC 총회장, 아가페장로교회)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천국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른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7절).

“또 바른길로 인도하시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생애를 돌아볼 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셨기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른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셨고 또한 가장 안전한 지름길로 인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안보이고 삶은 어렵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절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의 굽이마다 어려운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과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음을 감사하며 지금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침은 부모님과 형의 낮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서 오랜 기간 살다가 고향 가까이 왔으나 하나님과 굳게 약속한 벨렐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벨렐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벨렐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은 알았습시다. 지난날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해군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는 일본의 패망을 보며 낙심한 가운데 목 아래로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후치다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하루에 만 번씩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느날 막내 아들이 감 흥시를 따서 “아버지 감 드세요” 하며 드릴 때 기이치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 손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영혼의 만족도 말씀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시간 감사해야 할 것이 많지만 풍성한 영혼의 양식과 아울러 좋은 음식을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최 선진국에서도 3천4백여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 조국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잘 사는 때라고 합니다. 한번씩 한국을 가보면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 이민와 사는 우리들도 먹고 사는데 어렵거나 배고픈 분은 거의 없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먹고 몸무게를 줄이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대도시나 근교에 사는 우리들은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 원하는 대로 있고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산골 조그마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된장찌개 먹고 싶어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애틀랜타까지 식구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 노스캐롤라이나 산골에 보내셨나 생각했었는데, 교우 중에는 거기에 서도 1시간 더 들어가는 산속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환경과 삶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11월 감사의 달 특히 감사절 주간에 바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조용히 지난 시간들을 묵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까요.

“사랑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육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더욱 자라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끼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며 우리의 공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식사 시간이 음식만 먹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나되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 병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2012대선 복음주의 패배... '문화전쟁' 본격화

CT, 진보 오바마 대통령재선 후 시작될 비성경적 가치관 대비 보도

11월 6일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마음은 착잡하다. 동성결혼을 공개 지지하고 결혼을 한 여자와 한 남자 간 결합이라고 정의한 결혼보호법을 폐기하겠다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메인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합법화됐고 메릴랜드와 워싱턴 주에서는 의회에서 이미 합법화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주민투표가 이뤄졌으며 미네소타에서는 동성결혼 금지 조항을 주헌법에 넣으려는 시도가 주민들의 거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결과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는 워싱턴 DC를 포함, 10개로 증가했다. 워싱턴에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게이이라고 밝힌 태미 볼드윈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2012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 스코어는 332-206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였다. 미국 대선에서 가장 늦게 개표 작업이 끝난 플로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바마 대통령이 득표율 50.0%를 기록했고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49.1%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로리다는 2만여 명의 부재자 투표에 대한 개표 작업이 늦어지면서 선

거가 끝난 뒤 나흘이 지나야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플로리다 선거인단 29명을 추가해 총 332명을 획득하며 2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롬니에 완승을 거뒀다. 전체 득표율로도 오바마 대통령이 총 6천190만7639(50.5%)를 얻으며 5천864만8640표(48%)에 그친 롬니를 따돌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7대 경합주로 꼽힌 콜로라도, 아이오와, 뉴햄프셔, 오하이오, 버지니아, 위스콘신, 플로리다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저력을 과시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소위 "신앙 함수" 즉 기독교 보수, 복음주의자 유권자들의 투표가 이번 대선에서는 한마디로 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주의자들의 연대와 일치기 높았으며, 오바마 재선 후에 벌어질 본격적인 "문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크리스천티투데이(CT)는 보도한다(In Defeats, Evangelicals' Political Unity at All-Time High).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인단과 전체 득표율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지난 2000년 대선처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엘 고어 후보에 전체 득표율에서는 졌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이겨 당선되면서 쏟아졌던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재선에 성공했지만 민심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선에서 초선 때보다 낮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모두 초선 때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초선으로 당선됐던 2008년 대선보다 득표율이 2%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인단에서도 365명을 확보하며 173명에 그



당선됐다.

경합 주 중 오하이오는 대선을 가능 하는 분수령과 같은 곳이다. 롬니 후보가 최선을 다해가며 오하이오 민심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2008년 대선에 비해(71%) 68%의 지지만을 얻는 데 그쳤다.

미시시피 주는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가장 보수적인 주로, 거의 모든 백인 복음주의자들 즉 96%가 롬니를 지지했다(2004년에는 43%), 반면에 흑인들은 94%가 오바마를 지지했다.

메릴랜드와 메인 주는 동성결혼을 투표를 통해 찬성했다. 워싱턴 주 역시 거의 동성결혼을 결정했는데, 이는 국회사법부에 의한 동성결혼 인정이 아닌 투표를 통한 결정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네소타에서도 동성결혼 금지법안이 부결됐지만, 아직까지는 주법으로 이성간의 결혼만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때 공

오바마 완승 불구 초선때보다 지지율 2%포인트 하락 동성결혼 합법화 10개주, 동성애자 상원의원도 당선

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가볍게 꺾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4년 전에 비해 35명의 선거인단을 잃었다. 또한 민주당이 약속했던 의회는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그만큼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피로가 쌓였고 미국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 돌린 민심을 되찾고 의회의 협력도 얻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한편 물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롬니 후보를 지지했던 복음주의 진영은 패배로 인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 출구 조사에 따르면 백인 보수, 복음주의적 유권자들은 거의 80% 정도가 롬니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에,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이 오바마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따라서 보도를 통해 "WASP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이 바로 2012년 대선 결과라는 뉴스위크지의 예측이 적중했다.

공화당 즉 보수적 정책들을 공약으로 천명하는 후보에게 복음주의자들은 거의 일방적인 지지를 해왔다. 1982년 만해도 "중생을 경험한 유권자들"의 득표는 민주 공화 양당 후보에게 50대50으로 양분됐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이후로는 과반수 이상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 2004년에는 밥 돌 상원의원을 60%이상, 2008년에는 존 매케인 후보를

71%로 후원하는 기염을 보였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80%나 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롬니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했다.

인디애나 주 출구 조사는 얼마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롬니, 즉 보수 성향의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2008년 대선에서 매케인 후보를 69% 지지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79%나 되는 유권자들이 롬니를 지지했다.

인디애나 상원 후보 지지율 역시, 롬니 후보에는 못 미치지만 강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리처드 머독 후보를 68%나 지지했으나, 민주당 조 도넬리 후보를 32%를 지지해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화당 대권 경쟁에서 티파티 운동의 전폭적인 지지로 부상했던 미셸 벡크만 하원의원 역시, 민주당 후보에 비해 겨우 3,000표, 즉 1% 미만의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주민발의안 35 찬성은 그나마 복음주의 진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민발의안35는 인신 매매범들의 형량을 늘리는 법안으로, 크리스찬 운동가인 풍(D. Phung)의 주도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다가 페이스북에서 개인 신상 정보 보안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 크리스 켈리(C. Kelly)의 재정적인 지원까지 얻어내 80%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것이다.

<4면으로 계속>



시론

다 내 키는 아니예요



양훈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금년 감사의 달 11월은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많은 고통과 피해와 함께 시작되었다. 큰 파괴력을 가지고 들이닥친 샌디로 인하여 175명이 넘는 사망자와 50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사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일동안 정전이 되어 가정적으로 또 비즈니스상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복구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아직도 당하고 있다. 정전되어

어둡고, 히팅(Heating)이 안되어 춥고, 자동차 개스를 얻지 못하여 발이 묶이며, 전화 및 인터넷이 작동하지 않아 많은 지장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는 다시 주변을 밝혀주는 전기와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Heating, 여기저기에 문을 열고 개솔린을 공급해주는 개스 스테이션 등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세 살 난 손녀가 시카고 대학의 저명한 교수인 할아버지 댁에 놀러갔다. 이 어린 아이는 방과후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대학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어깨위에 태우고 가달라고 할아버지에게 졸랐다. 할아버지는 음식을 부리는 손녀를 어깨위에 태우고 걷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어깨위에 앉아 타고 목을 꼭 붙들고 가는 이 아이를 본 한 동료교수가 활짝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오 저런, 애야, 네 키가 매우 커졌구나. 지난주보다 오늘 네 키가 3배나 더 자랐구나." 그러자 어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다 내 키는 아니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말이라 생각된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성공과 성취는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준 누군가의 어깨 위에 얹어타고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기에 William Stidger 목사는 추수감사절이 가까오는 11월에는 매일 한장씩 "감사편지"를 썼다고 한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시절, 청년시기에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준 분들 즉, 좋은 책을 소개해준 친구들, 삶의 위기에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주었던 동료들과 선배들, 옛 학교 스승들, 운동 코치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 감사편지의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되돌려 받는 풍성함이다. 서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감사편지로 인하여 위로와 기쁨을 얻기 때문이다. 그는 옛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Mrs. Wentworth로부터 온 편지를 소개하며 되돌려 받은 풍성함을 나누고 있다.

"친애하는 윌리엄, 나는 80대에 이른 늙은이가 되었던다. 나는 병이 들어서 내 방을 나설 힘도 없었다. 너의 편지는 밝은 태양 광선처럼 나의 어두워만 가는 날들을 환하게 비추면서 찾아 왔었다. 5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후, 윌리엄아 네 편지는 처음으로 받아본 감사편지였었다. 너는 나에게서 먹장구름을 거둬 주었었다. 윌리엄, 참으로 고맙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로 되돌려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절에는 나 또한 감사의 편지 보내기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의 고백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겠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한 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린도전서 15:10).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봄학기 본교강의안내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Feb 11-15(2월 11 -15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Roger Peugh

Feb 18-22 (2월 18-22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모집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선교학 박사과정(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A Session (Jan 7-Mar 1: 1월 7일-3월 1일)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B Session (Mar 11-May 3: 3월 11일-5월 3일)

PM 803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 Jan 7-11 (1월 7-11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Jan 14-18 (1월 14-18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New Delhi, India

- Jan 21-25 (1월 21 - 25일)
DI 852 World Religions(세계종교)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 852 World Religions (세계종교)

제25차 KWMC 전국년차총회 성황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제25차 전국년차총회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됐다.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동 협의회 연차총회 둘째 날 오전 경건회는 박은우 목사(부의장/MIM) 사회로, 남궁전 목사(부의장/아틀란타베다니교회) 기도, 장영춘 공동의장이자 분기발행인이 설교를 했다. 이어 김해진 선교사(맥시코), 양창근 선교사(파라과이), 하정철 선교사(인도)가 선교도전의 시간을 인도했으며 고인호 목사(증경

회장)이 축도했다.

한편 개회예배는 조일구 목사(부의장/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사회로, 호성기 목사(부의장/필라안디옥교회)가 기도한 후, 나광삼 목사(대표의장/큰무리교회)가 여호수아 14장 6-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나 목사는 “목회자의 건강은 중요하다. 하나님은 단지 육신의 나이를 보고 일시키지 않으신다. 목회자는 영적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 갈렙과 같이 나이가 많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으로 나아가면 새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의 건강을 점검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은 생명양식이기에 생명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섭취에 신경 써야 하며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시간을 가져 영적건강을 지켜야 한다. 또한 강단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이 영적권위이고 믿음의 건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교목 선교사(태국), 조남희 선교사(타지키스탄), 최바울 선교사(C국)가 선교도전의 시간을 인도했다. 이어 김만우 목사(증경회장)의 집례로 성찬식을 가졌으며 나윤태 목사(증경회장)가 축도했다.



KWMC년차총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개회예배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화요일 오후에는 KWMC 사역비전에 대해 송충석 선교사(KWMC공동회장/케냐), 북미주한인실태조사에 대해 오상철 박사(미민신학연구소), 북미다민족사역

에 대해 임찬혁 목사(부의장/빌리 그래함센터 다민족사역), 킷넷의 비전과 사역방향에 대해 이현석 목사(킷넷사무총장), GIM선교사역에 대해 양태철 목사(부의장, GMI미주분

부장), WEC선교사역에 대해 조혜선 선교사 등이 강의를 인도했다.

이번 총회는 수요일 오전에 열린 폐회예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박준호 기자)

무슬림들이여, 네 자신을 돌아보라!

뉴욕타임스, 중동미디어연구소가 밝히는 무슬림의 타종교 모독사례 소개

지난 2012년 9월 초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Cairo)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슬람 선지자를 모독하는 동영상에 대한 항의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무슬림이 기독교 성경의 인물을 모독한 바가 없는 데 왜 무함마드 선지자는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냐고 외치며 자신들의 시위를 정당화했고 미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에 의해 촉발된 시위로 이집트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파괴를 당하였고 리비아에서는 미국 대사가 죽기에 이르렀다.

물론 무함마드 선지자를 모독하는 동영상 제작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만 최소한 이 동영상은 사람들에게 대사관을 공격하거나 무고한 외교관을 죽이라고 선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이런 폭

력행위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 행동은 절대 아니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중동의 시위대들은 미국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의 처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들은 언론에서, 방송에서, 책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무슬림들에게도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모욕하고 폭행을 휘둘렀다.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수니(Sunni)파 무슬림이 시아(Shiite)파 무슬림을, 수니파 무슬림이 수피(Sufi)파 무슬림을 그리고 근본주의 무슬림이 온건주의 무슬림을 증오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한다(Look in Your Mirror!).

이스라엘 정부의 대테러 전문가 카르몬(Yigal Carmon)에 의해 1998년 미국에서 창설된 중동미디어연구소(The Middle East Media Research Institute)는 중동과 서양의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랍어는 물론 이란어, 우르두(Urdu)어 파쉬투(Pashtu)어로 된 언론 기사와 학교 교재, 종교 설교를 검색하고 번역하는 일을 해온 단체이다. 이 연구소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추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용감한 자유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주장도 번역해 소개해왔다. 아래는 중동미디어연구소가 제공한 무슬림들의 타종교 및 타민족 모독 사례들이다.

이란의 문화혁명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Cultural Revolution)의 하산 위원은 2007년 7월 “기독교는 악취를 감추기 위해 계속 향수를 뿌려야 하는 시체와 같은 종교”라고 말했다. 이라크의 이슬람 성직자 알 바드디는 2011년 4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성전(jihad)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독교인들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2005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법 학자 알 파우



잔 교수는 알 마지드(Al-Majid) 방송에 나와 기독교인을 향한 ‘긍정적(positive) 증오’를 선동했다.

2012년 6월 이집트의 이슬람 성직자 아이쿱은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 대통령 후보 모르시가 자신에게 시아파 무슬림이 유대인보다 이슬람에 더 위험한 존재라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이

집트의 다른 이슬람 성직자 알 시르 사위는 2011년 8월 “알라 신이 시아파 무슬림들을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당나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3월 파키스탄에서는 시아파 무슬림들은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 제작되기도 했다.

2012년 9월 이집트 무슬림 형제

단은 홈페이지에 미국과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성전(聖戰)을 선포하고, 미국인과 유대인은 원숭이와 돼지의 후손들이라는 내용을 올렸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성직자 무스타파이는 2012년 8월 “유대인이 말살돼야 세상이 정화되고 평화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집트 알 아자르 대학교의 교수 무함마드 박사는 2012년 2월 “유대인은 인류 사회에서 악과 해악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수피파 무슬림을 향한 무슬림의 모독과 증오도 있는데, 리비아에 있는 수피파 무슬림 성인을 기리는 사원이 2012년 8월 강경보수주의 수니파 이슬람의 근본주의 성향 종파인 살라피(Salafi)파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파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슬람 세계에서 이렇게 소수 종파와 민족을 향한 무관용적 발언과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이는 이슬람 세계 전체가 아닌 일부의 사상과 행동이며 이슬람 세계 내부에는 뿌리 깊은 관용의 정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슬람 사회는 미국과 같이 다양한 사회이다. 다양한 사

2012대선 복음주의 패배... '문화전쟁' 본격화

(3면에서 계속)

동일한 맥락에서,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불치병이나 평생 병원 침대에서 살아야 하는 환자들이 자살을 원할 시에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현재 오래된, 워싱턴 주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도와줄 수 있는 주이다.

남침례교 산하 유력 연구소인 ‘라이프웨이 리서치’ 에드 스테처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이 나라가 복음주의 기독교와 다른 도덕적 견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우리가 ‘문화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의 전쟁은 미국에서 동성결혼과 낙태 찬반을 둘러싼 수십 년 간의 대립을 말한다.

복음적 기독교계는 그동안 리버티 대학교 설립자인 고 제리 파월 목사, 유력한 기독교 단체인 포커스온패밀리리의 제임스 스피스 목사, 기독교방송네트워크의 팻 로버트 목사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독교 우파’를 통해 동성결혼과 낙태를 반대하는 정치인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미국인들 가운데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다.

퓨리치센터에 따르면 2012년 기준 48%의 미국인들이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고 43%가 반대하고 있다. 4년 전에는 51%는 동성결혼을 반대했고 39%는 지지했다.

스테처 대표는 “대인 주에서 동성결혼이 법외나 의회가 아닌 주민들의 찬성으로 합법화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것은 ‘문화의 전쟁 후’ 교회가 어떻게 될 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역시 하나님의 뜻에 속한 영역이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진보적인 세계관으로 미국을 운영할 것이 분명하기에, 복음주의의 크리스천들은 각자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성경적 가치를 재천명하는 문화 전쟁을 치러나가야 한다는 것이 복음주의 진영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시 말해서 대선의 막은 내려졌지만 문화전쟁이라는 제 2라운드 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회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과 행동을 제거하여 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집트의 카이로 거리에서 반미 시위를 벌이는 이들이 이슬람과 이슬람 선지자에 대한 서양의 존중을 요구하는 외침은 정당하다. 미국 정부와 미국의 주요 언론이 일관되게 종교와 민족에 대한 증오를 비난해온 것처럼, 이슬람 세계의 정부와 언론도 중동과 무슬림 나라에서 일어나는 소수 종교인과 소수 민족을 향한 다수 무슬림의 증오와 폭력을 비난하고 적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도시간을 **확보**하라 기도응답을 **확신**하라 기도범위를 **확대**하라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성회

| 일시 : 2012년 11월 15일(목, 저녁) ~ 22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대표(신학생 훈련단체)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LA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한국의 안양에 위치한 갈멜산금식기도원에서 2012년 2월 19일에 설립한 기도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자 세워졌습니다. 코리아타운 내 카타리나와 W 8th 코너에 위치하여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주 갈멜산기도원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기도회와 매일 조성근 담임목사가 직접 성회를 인도하는 매일 정기기도성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와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교회중심과 말씀중심의 기도성회에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어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회복의 감격,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몇 년의 신앙이 앞당겨지고 직분자들은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을 지니게 되며 사역자들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이야기의 첫문장이 됩니다. 지금도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교육칼럼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9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남보다 훌륭하게 키워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너무 통속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에는 이념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을 위해 교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이념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21세기 다문화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더불어 사는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교육에도 이념이 있듯이 기독교교육에도 교육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

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잘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GNP가 20,000불을 향해 발전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IT왕국이기 때문에 잘사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한류 문화가 우월하여 잘사는 나라일까요? 갈수록 빈부의 차이는 극심해지고 물질문명에 비해 정신문화가 퇴폐해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렇

은 학문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화학 등 이공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인문과학이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문과 더 나아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독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

서서히 방향을 선회하는 것처럼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더 소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에 헌금을 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수고하고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남의 돈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최고의 목적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 받고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자기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살았지만 가족과 민족을 구하고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나은 것처럼 신자의 삶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위한 교육보다는 과정 속에 들어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교육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찾아 교육과정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기독교교육에 있어 주일학교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보다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지루하고 따분한 교육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계획 수립된 주일학교 교육 필요 각 학년에 따른 소재와 자료로 학습활동 높여야

합니다. 즉 인간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난 자아를 찾는 것이요, 사회적으로는 인간이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적인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부름 받은 자가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끼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현장은 교육이념이나 철학과는 상이한 매우 현실적이고 통속적인 목적 밖에는 그 무엇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매우 중요하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반교육에 있어서 교육이념도 사람다운 사람 즉 더불어 함께 사는 인간을 길러내자는 것인데 하물며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교육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이제

게 쉽게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자만할 수는 없겠지요. 적어도 사람이 행복하여 잘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자녀교육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가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인재로 자라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노벨상 수상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의 공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원의 역할이 우리 아이들을 더욱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찾는 요령만을 가르쳐 시험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만 입학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정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답이 나오기까지 수리과정이나 사고의 과정이나 추리과정 등 단계적인 사고의 단계를 발전시켜 능력을 배양시켜야 대학에 가서도 더 깊

게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회사를 망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서민들의 생활 근거지를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도시개발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개발을 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추진해 갑니다. 물론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케이블TV산업을 죽이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케이블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벌써 오래 전에 미국에서도 위성접시 안테나가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위성접시 디지털TV 수신기 보급을 늦추면서 서서히 케이블TV와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만일 하루아침에 위성접시로 사용을 전면적으로 바꾸면 케이블TV 산업에 종사하는 수백 만의 사람들이 입을 타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서서히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마치 큰 배가 항해하다 방향을 바꿀 때, 크게 돌아

학습의 주체가 곧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로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흥미위주로 교회학교를 운영해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흥미유발은 필요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성취동기를 갖게 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시키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5관(五官)을 다 동원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느끼는 모든 감각적인 부분을 극대화하여 학습활동에 게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년에 따라 소재가 다르겠지만 학습 자료는 아이들의 학습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 없는 수업은 죽은 수업이라고 할 만 아이들의 귀만 사용하여 듣게만 한다면 아이들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학습활동 자체가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활동이 현장감이 있는 교육 즉 삶과 연관된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마11:4-5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의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1:15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고백하고 독생자 메시야임을 명백히 선언 하였습니다. 성경말씀을 0.1%라도 의심하면 불신 죄에 해당하여 복음의 핵심에서 이탈하여 세상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며, 예수님도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쾌한 답변 기대합니다.
-Carson에 사는 Paul Kim

A: 세례요한은 현재 헤롯왕 안디바 왕에 의해 사해에서 동쪽으로 5마일 떨어진 마케루스에 있는 어두운 감옥 속에 오랫동안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헤롯궁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면회자를 만날 허락을 받았고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알고 전한 예수에 대한 메시지와 소문에 들려온 예수님의 메시지는 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는 형벌과 멸망을 가져올 심판의 메시야(마 3:7,10, 눅3:7,9)라고 외쳤는데 예수님에 대해 들려온 소식은 은혜로운 말씀과 수많은 자비로운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신약주석가인 윌리엄 그랜트는 그의 주석에서 요한이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저지른 실수는 그가 예언한 심판과 원수의 멸망은

세례요한은 메시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

지금도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되리라는 점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매우 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예수께 가져갔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그 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야를 알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구자로서 첫째,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를 외쳤고 둘째로, 메시야 왕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로서 회개의 필요성을 외쳤고 셋째, 메시야가 등장하자 그는 겸손하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의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이 말을 요한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진술은 마13:16, 17절의 진술처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는 말씀의 견지에서 설명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나타나셨을 때 줄곧 감옥에 있었으므로 예수와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였고 예수의 능력있는 사역과 치유와 기적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시적인 의심이 들은 것이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추측은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선생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35:5,6과 61:1절의 예언처럼 메시야의 예언을 생각나게 하려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요한은 메시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잠시 오해와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온 제자들의 말을 듣고 곧 확신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담임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북서부의 디어필드시에 위치한 참길장로교회에서는 목회적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교회로 3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 자격요건**
1.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
 2.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목사 또는 가입에 걸려 사유가 없으신 분
 3. 조직 교회에서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
 4.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1부
 2. 신임고백서..... 1부
 3. 신학대학원(M.Div.)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목사인수 증명서 1부
 5. 목회 비전서(목회 철학 포함) 1부
 6. 목사 추천서(추천자의 연락처 경기) 1부
 7. 자기소개서..... 1부
 8. 최근 설교 자료..... 2편(오디오 또는 동영상: 1편은 반드시 동영상일 것)

접수마감 2012년 12월 28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이메일 : trueway3117@gmail.com (허광영 장로/ 청빙위원장)
우 편 : TRUE WAY PRESBYTERIAN CHURCH(담임목사 청빙위원장)
445 PINE ST., DEERFIELD, IL 60015

-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 제출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청빙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길장로교회 청빙위원장

템파한인장로교회 반주자, 지휘장 청빙

본 교회는 서부 플로리다 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한인교회로서 음악에 전공하신 분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기대를 이룰 지휘자 및 피아노를 전공한 반주자를 구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건: 전공자로서 세례 받은 분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추천서 1통
 - 연락 처: 예배위원장 원순수 장로 (Tel. 8130960-4949)
- 담회서기 이후근장로(Tel. 813-789-2674)
E-mail: leesauto2004@gmail.com



템파한인장로교회(담임 김용일 목사)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Tampa(PCUSA)
6011 Yosemite Dr, Tampa, FL 33634
Tel. 813-881-0068, 882-0246 / www.kapctamp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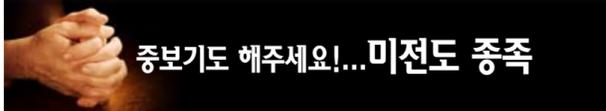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
받습니다.

40여개의
특별한
제고
다.다.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판카나(PANCANA)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금도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00여개의 뚜렷한 인종들이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남동쪽 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아시아 대륙 사이의 해로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연계해 있다. 2만명의 판카나(또한 카폰토리 Kapontori라고도 알려진)는 메콩가(Mekong) 산악지대의 남쪽에 있는 술라웨시의 섬의 서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판카나라고 알려진 그들의 언어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한 부분이다. 언어학적으로 판카나는 시아시아(Cia-Cia)와 무나(Muna)와 매우 가깝다.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판카나가 그들의 이웃인 무나(Muna)와 빙코카(Bingkokak)과 마로네네(Maronene)와 매우 비슷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삶의 모습

술라웨시는 3,500마일의 연안을 가진 섬이다. 이는 두 개의 남쪽으로 확장된 반도와 두 개의 남동쪽 반도와 함께 깊은 만들로 나뉘어진 4개의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의 남쪽 부분은 9,419피트의 높이인 사화산인 롬포바탕(Lompobatang)인 술라웨시의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비록 기후가 열대기후 일지라도 근접한 바다와 고도로 인해 다소 온화하다.

판카나는 작은 대지(베어내거나 태워서 만들어진 땅)에서 자라는 옥수수가 주된 산물이며, 그러나 고구마, 사탕수수, 채소, 담배, 커피가 또한 자란다. 일반적으로 죽마로 만들어진 그들의 집은 산림을 개별함으로 만들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풀

을 역어서 만들고 매우 높은 지붕을 가지고 있다.

구별된 사회 계급은 여전히 높은 귀족 계급과 낮은 귀족 계급, 그리고 일반인으로 술라웨시에서 그룹으로 뚜렷이 나뉘어져 있다. 각각의 계급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따라 그들 자신에 적합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 지역은 전형적으로 마을 영역 안에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땅을 사용하는 권리는 마을의회의에 의해 다스려진다. 그러나 의회는 모든 지역에서 궁극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판카나의 결혼 관습은 약혼식과 결혼식에서 여성의 가족들에게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된다. 신부에 대한 지불 가격은 남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결혼식 전에 그는 그의 장래의 장인 장모와 함께 시험적으로 섬기는 기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 때문에

가출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노예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이 함께 살지라도 서로 결혼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또한 귀족 여성은 일반인과 결혼할 수 없었다. 부인은 한명 이상 가지고 있는 폴기니(Polygyny)는 귀족들 사이에서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은 인도네시아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8백만의 농부들이 있다. 미개척지를 개척하기 위해 봄베는 지역으로부터 이주시키기 위해 정부는 땅과 집과 다른 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신앙

이슬람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우세한 지역이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14세기 이전에는 군도에 널리 퍼져 있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주로 발

리에 적은 인구만이 남아있다. 인도네시아의 13%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며, 대부분이 신교도이고 많은 중국인들은 불교적 도교사상을 따르고 있다. 정령숭배는 외진 지역의 부족들이 따르고 있다.

이슬람은 1600년 이래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종교이며, 판카나는 사실상 대부분이 수니 무슬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앙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약령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판카나는 그들 자신의 언어로 된 어떠한 기독교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그들 사이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어떠한 선교단체도 없다.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과 다른 자료들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종보기도는 판카나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영국 성공회 차기 캔터베리 대주교 내정

차기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에 저스틴 웰비(56) 대령 주교가 내정됐다고 8일 텔레그래프 지가 보도했다. 웰비 주교는 영국 성공회 대주교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5대 수장으로 지명됐고, 여왕의 재가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웰비 주교는 이튼스쿨과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 정유업계에서 11년간 일하다가 1980년대 후반 성공회 사제의 길을 시작했다. 리버풀 교구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성공회 4번째 고위직인 대령 주교로 임명됐다. 보수 성향을 갖고 있으며,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하지만 여성 주교 임명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는 올해를 끝으로 사임한다. 2002년 취임한 이후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및 여성 주교 임명 허용 문제로 정치권 및 진보진영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 세계 최대 성경 출판국 부상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출판하는 나라가 됐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성경 출판 허가를 받은 동부 장쑤(江蘇) 성의 난징 아이더(南京 愛德) 인쇄 유행공사 추중후이(丘仲樞) 회장은 지난 7월 1억권째 성경을 찍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보도한 중국 통신사에 따르면 아이더 인쇄는 지금까지 9개 소수민족 언어를 포함해 중국어 성경 약 6000만권을 펴냈다. 또 90여개국 언어로 전 세계 70여 개국에 4000만권을 제공했다. 아이더 인쇄는 중국어 이더기금회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가 공동 설립한 출판사로 1988년부터 성경을 발간해왔다.

중국에는 1600만명의 기독교 신자와 5만5000개의 교회와 공소가 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교역자

3만6000명이다. 오바마 재선, 인니 초등생들 "또 이겼다" 환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녔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멘렝 제1 초등학교 학생들은 7일 그의 재선을 확정되자 일제히 "오바마! 오바마!"를 외치며 함께 기쁨을 나눴다.



4년 전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유명세를 탄 멘렝 초등학교에는 이날 많은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학생들이 로비 등에 설치된 TV 앞에 모여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일부 학생들은 오바마 대통령 포스터를 들고 나와 그의 승리를 기원했다. 미국 방송사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발표하자 온 학교는 이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곳곳에서 "오바마!"를 연호했고 일부는 오바마 대통령 포스터를 들고 교실을 돌며 "오바마가 이겼다. 또 이겼다"고 외쳤다.

학생들은 대선배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정한 충고도 했다. 5학년 디안드라 세카라유는 "오바마가 세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고, 6학년 나디아 안젤리나는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오바마는 백인인 미국인 어머니와 흑인인 케냐인 아버지가 이혼하기 전까지 하와이에서 성장하다가 6세 때 어머니와 인도네시아인 새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도네시아로 이주,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한편 대니얼 스파링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수실로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의 재선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미 백인, 2050년 소수계로 전락

오는 2050년에는 미국 전체 인구에서 히스패닉(중남미계 이민자)과 흑인, 아시아계 등 소수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5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현재 다수계인 백인은 47%로 줄어 지위가 소수계로 전락할 전망이다.

미 인구 변화 문제는 지난 6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벌써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론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완패한 공화당 안팎에선 공화당(지지층)이 '너무 높고 백인과 남성 위주여서 이대로 가면 앞으로 선거에서 전패하는 게 아니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자신을 지지한 소수계는 물론 백인·미혼 여성, 젊은 층, 대졸자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새로운 '유권자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재선에 성공했다. 8일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80%의 지지를 보낸 소수계가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소수계는 현재 전체 인구의 37%를 점하고 있으며 올해 대선 투표율은 28%(총조사)였다. 히스패닉은 현재 17%에서 29%로, 흑인은 12%에서 13%로, 아시아계는 5%에서 9%로 늘어 소수계 비중이 51%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비(非)히스패닉 백인은 현재 63%에서 47% 또는 50%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 인구조사(센서스)국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된 퓨리서치는 이번 인구 변화가 이민, 출생과 사망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 "스핑크스·피라미드 파괴해야"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한 이집트인 지도자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이슬람교에서 금지하는 '우상(idol)'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아랍권 위성채널 알 아라비아 인터넷판에 따르면 이슬람 선전(지하드) 지도자인 무르칸 살렘 알 고하리(50)는 지난 10일 이집트 '드림TV'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이슬람교도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적용해 스핑크스, 피라미드와 같은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하리는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에서 폭력 사용을 옹호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지도자로, 자신이 탈레반과 연계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신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우상을 파괴하라고 지시했다"며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함께 있을 때 불상들을 없애버렸다. 우리는 정부가 실패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하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극단적 보수주의 성향의 이슬람교도 수천 명이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새 헌법에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연 바로 다음날 나왔다. 최근 수개월간 이집트에서는 강경 이슬람주의 정당인 '살라피'가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집트 무슬림들에 대한 새 지침 마련에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국민 스트레스 심각, 종교가 '힐링'에 도움

[CBS]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40% 이상은 자살충동까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국민 8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6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다. 직업문제, 건강문제, 가정문제 등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응답자의 43%는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들이 현재 삶에서 느끼는 행복도는 61점으로 나타났다. '2~3년 전과 비교해 현재 더 행복하냐?'는 질문에는 25.9%의 응답자만 '행복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종교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행복과 정신 건강과 관련해 응답자의 60.4%가 종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종교로부터 받은 도움으로는 '자기 위로와 심리적 안정'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종교가 삶의 행복을 높여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4.7%가 '그렇다'고 답했고, 42.4%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가 국민에게 행복과 힐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2.4%였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이밖에 기독교인 지도자들을 통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이 60.8%,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한국교회가 국민이 바라는 행복과 힐링을 위해 감당해야 할 일로 '소외계층 도움 역할'(35.3%), '사회갈등 해소'(20.7%), '신앙의 회복'(19.4%), '소통의 창구 역할'(10.5%), '고민상담처 역할'(8.3%) 등을 제시했다.

Advertisement for JoyLA.com featuring Bible sets and diaries. Includes text like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 OFF', '2013 미주용 다이어리 신청하세요', and '조이기독백화점'.

제 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다음세대에 그리스도를



김혜천 목사 |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성경적 신앙전수의 원리 (3)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교육원리

신명기 6:1-9은 우리에게 세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한다. 먼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 아테네의 교육이나 로마의 교육은 국가를 위한 사람을 만드는데 있었다. 오늘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게 해야 하는가?

본문 6:4-5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 함께 읽어보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는 것이다. 지식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속에 모든 것이 풀려난다.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 본문의 말씀으로 명령하셨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초점이다. 다음세대의 신앙전수는 한마디로 하면 자녀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원리는 '경험의 원리' (The Principle of Experience)이다. 그들로 경험케 해야 한다.

경험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교육의 방법이다. 어렸을 때 매주일 교회를 출석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경험의 원리는 성경전체를 통해서 발견하는 교육원리이고 신앙계승의 원리이다. 목표는 자녀로 경험케 하는 것이다. 무엇을 경험케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경험케 한다.

어떻게 하는가? 잠언 22:6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1)어렸을 때에 가르치라는 말씀이다. 2)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게 되는 축복이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말씀이고 또한 사회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현대의 상황도 역시 증

명한다. 오직 26%가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를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61%가 교회생활을 하지 않는다. 청소년 때의 통계를 보아도 그 패턴이 같다. 청소년 때 교회에 매주일 출석한 사람들의 19%만이 교회생활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청소년 때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사람의 69%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릴 때의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보여준다. 한 국교회의 문제는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가지만 대학과 함께 교회를 떠난다. 심각한 문제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본문 2절에 보면 신앙전수의 4세대가 나온다. 1)나의 세대이다. 모세

의 세대이다. 2)나의 세대이다. 말씀 받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세대, 우리의 세대이다. 3)내 아들의 세대이다. 4)내 손자의 세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본문 신명기 6:9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 하셨다. 너의 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를 향한 명령이다. 모세의 관심은 4세대에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런데 4세대의 신앙전수는 '너의 세대'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다.

한마디로 하면 먼저 '너의 세대가 경험하라'는 명령이다. 모세의 관심은 제일 먼저 너의 세대 즉 여호수아 세대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너의 세대인 부모인 우리의 세대에게 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전수의 실패는 나의 신앙적 실패에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의 젊은이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적 실패 때문이라는 말씀이다.

현대의 특징은 아버지 없는 세대이다. 1995년도에 청소년의 문제는 '아버지 없는 사회'(fatherless society) 화 되어져 가는데 있다. 아버지 없는 사회가 갖는 특징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것은 흑인사회나, 라틴계나, 동양계를 위시한 전 세대 그룹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니 이 세대의 문제이다. 아버지 없는 사회이기에 롤

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기 위하여서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세대를 일으킬 수 많은 멘토(mentor)들의 이야기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멘토시다.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나님을 경험케 했다. 바울은 디모데를, 바나바는 마가를, 바나바는 바울을, 모세는 여호수아의 멘토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계승의 4세대를 말한다. 소위 디모데 원리이다. 신앙의 4세대는 무엇인가? 바울과 디모데와 총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는 신앙계승의 전략이다.

Next Generation Leader의 저자인 앤드류 스탠리는 다음세대의 지도자의 5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 코칭(Coaching)을 강조했다. 코치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관찰하고 지시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코치는 나쁜 습관을 고쳐주고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 선수가 좋은 코치를 만나면 기량이 놀랍게 증진된다.

다음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 신앙전수의 모델을 제시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의 role model이고, mentor이고, coach이다. 모세의 경험이 여호수아의 경험이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다른 사람

문을 열자.

둘째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원리는 '노출의 원리'(The Principle of Exposure)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

자녀들이 노출된 것이 무엇인가? 온통 세상의 미디어, TV, 인터넷, 허리우드, 게임... 등이다. 이 세대의 큰 위기가 노출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문화는 세속적이고, 충동적이고, 뉴에이지적이고, 사탄적인 문화이다.

학교 교육은 지식을 가르쳐도 도덕이나 윤리는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에서 성경을 제하고, 기도를 제하고, 심계명을 제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모든 세상의 철학과 생활양식은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금지어가 되어 버렸다. 자녀들은 수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그리고 인터넷에 TV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을 제외한 교육의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었다. 쾌락의 세대이고, 마약과 자살과 우울증이 판을 친다. 하나님을 버리니 정체성의 문제로 해마다.

유산과 미혼녀의 문제, 청소년 임신의 문제는 심각하다. 매해 백만 명 이상의 십대가 임신한다. 매 31초마다 한명의 청소년이 임신하는 셈이다. 에이즈는 젊은이 사망 원인의 1위이다. 성병은 매해 1천 2백만 명이 걸린다. 여자 5명 중에 한명이 성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3는 25세 미만이다. 이 리스트를 더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바른 것에 대한 노출을 명한다. 본문 7절은 분명하다. 노출의 원리이다. 어디에서? 집에서, 길에서 이다. 어떤 경우에? 앉았을 때,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다. 부지런히 라는 원어의 뜻은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는 뜻이다. 문자적인 의미는 두번 말하다. 반복하다 라는 뜻이다. 말씀을 자주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명령이다. 자녀들을 말씀 앞에 자주 노출시키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자주 노출시키라 하셨다.

이 노출의 현상이 어디인가? 학교이고, 가정이고, 교회이고, 모든 장소요, 모든 경우이다. 특별히 가정의 context 에서 명령하셨다. 우리가 자주 말씀에 노출되고, 자녀들을 자주 말씀에 노출시켜야 한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듣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듣고 배우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경험의 원리: 성경적 멘토링과 코칭으로 신앙계승

노출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에 자주 노출시켜야

모델(role model)이 없다. 본받을 사람이 없다. 지도하고 품에 안아 줄 사람이 없다.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결과가 이미 밝혀져 있다.

어떻게 극복케 하는가? 먼저 나의 세대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보여주는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세대의 순종이 없는 다음 세대의 순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음 세대로 경험케 해야 한다. 다음세대로 기도를 경험케 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케 하고, 헌신을 경험케 보여주고, 말씀을 경험케 해야 한다.

시간 관계상 깊이 나눌 수 없지만 두 가지 전략을 말하고 싶다. 하나는 멘토링이고, 다른 하나는 코칭이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

을 갖는 것을 그치지. 신앙전수는 일차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누가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 목사인 나는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약간 오래전 조사에 의하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목사님이 27%, 기독교 믿음이 48%, 친구가 51%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영향력은 78%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던 부모의 영향력은 아직도 엄청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자. 먼저 내가 경험하고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열린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신청 자격 | Qualification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장학금액 | Scholarship Amount

월당 \$1,000 per person

신청마감 | Application Deadline

2012년 12월 8일 / December 8, 2012

신청 서류 |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할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서류 보내실곳 |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d.
Kalamazoo, MI 49008

문의사항 | For more Informations

-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 *평신도 선교운동본부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T/269-372-4262 / hmfrhew@sbcglobal.net



모나리자

스킨케어

Thanksgiving Day Special Price 11월 30일까지

Thanksgiving Day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귀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부름받은 사명위해 영적각성 힘쓰라”

10월 29-31일 KAPC 중남미지역 첫 목사장로기도회

중남미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남수 목사) 목사장로기도회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 브라질 지리버그스 빌리지 호텔에서 개최됐다. 브라질노회(부노회장 심석현 목

사)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 첫날 예배는 오세훈 목사(총회교육부장) 사 회로 김성민 장로 기도 후 김남수 목사(뉴저지사가페장로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일어나라 사명을 위하여”(왕상19:7-8)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부름 받은 자들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영적 각성에 더욱 힘써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총회신앙 교회와 노회와 총 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저녁집회 주강사로 단에 오른 김 남수 목사는 “벨렐로 올라가자”(창 35:1-5)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 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목회 경험을 전 하며 참석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재무장게 했다.

둘째 날 아침기도회 역시 총회 장 김남수 목사가 “기도의 능력”(느 1:1-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했으며 오전 특강 첫 시간에는 오 세훈 목사가 “그 시대의 영웅”(삼하 11:6-17절)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 하고, 둘째 시간에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장로”(고전16:15-18)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사명자들은 주님께 더욱 충성된 삶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오후 시간에는 족구와 게임을 통해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통해 주안에서 하나됨을 재확인했다.

이날 저녁집회는 김남수 목사가 “갑절의 영감”(왕하2:1-14)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합심 기도 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날 아침기도회 및 폐회에 배는 김남수 목사가 “복음의 일꾼 되자”(딤후4:1-8)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번 모임의 취지와 목적을 확 실시하며 재무장하는 시간을 가졌 다. (기사제공: KAPC총회교육부)



뉴저지교협 주최 '어린이 성경암송대회'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대상에 임아비가엘, 성은장로교회 뉴저지교협 '어린이 성경암송대회' 성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간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어린이 성경암송대회’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천 목사) 제 26회기 출범 후 첫 번째 행사로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새언약교회(담임 김중국 목사)에서 개최됐다.

사모본과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총 18개의 교회 약 2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PK부터 5학년까지로 구성된 총 18명이 개인전에 출전했으며 단체전에는 10개 교회에서 약 80여명이 출전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전 △면류관 대상: 임아비가엘(4학년, 필그림교회) △면류관 상: 조은희(5학년, 그레이션연합교회), 이현명(1학년, 성은장로교회) ▲단체전 △대상: 성은장로교회 △최우수상: 평화교회 △대근감사패: 성은장로교회.

이날 행사에는 참가 어린이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기위해 지난 해 개인전 ‘면류관 대상’을 수상한 장수인 어린이(새동산장로교회)와 이동희 사모(새순교회)가 특별 출연해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회에 앞서 정혜성 목사(CSO다라미)의 사회로 1부 예배에서는 회장 박상천 목사(소망교회 담임)가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민22:21-3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헌금기도는 박근재 총무(시나브로교회 담임)가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목사장로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소중한 나눔 메마른 땅에 생수 나게”

소망소사이어티/굿네이버스, 차드 우물 2차원정대 발대식

소망소사이어티(대표 유분자 이사장)와 굿네이버스USA는 아프리카 차드 소망우물 2차 원정대를 위한 발대식 및 축복예배를 9일 오전 11시 소망소사이어티 내 소망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 및 축복예배는 정영길 목사(소망소사이어티 이사)가 기도해, 김도민 목사(라팔마연합감리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정영길 목사(소망소사이어티 이사)가 기도해, 김도민 목사(라팔마연합감리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이번 원정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브라이언 리브 감독이 “드롭박스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프리카 차드 영상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는 성영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장에 최명상 목사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영환 목사)는 지난 12일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동문회장에 최명상 목사를 선출했다.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최명상 회장은 “1년간의 동문회 회장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동문회가 모교와 동문들을 위한 여러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 동문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 동문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베데스다 동문회의 회장 임기는 1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동문회는 앞으로 흠뻑담미에 비 롯 동문주소록 발간 등의 사업 등을 펼쳐나가게 된다.

(박준호 기자)



LA문화선교원 시전 주최 제6회 시로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LA문화선교원 시전, 제6회 시로 드리는 예배

LA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은 제6회 ‘시로 드리는 예배’를 10일 오후 4시 광영교회(담임 정우성 목사)에서 열었다.

이날 이민미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시인”이라고 밝히며 “이번에 드려진 시로 드리는 예배는 제6기 LA 문화선교원 시전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작품들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됐다. 주로 삶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시로 표현됐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오게 돼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주최 제12회 뮤직페스티벌이 '모스크바의 밤'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월드미션대 음악과 제12회 뮤직페스티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가 주최한 제12회 뮤직페스티벌이 ‘모스크바의 밤’을 주제로 10일 저녁 7시30분 중앙선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뮤직페스티벌은 ‘모스크바의 밤’이라는 주제로 걸맞게 쌀쌀한 날씨 속에 열렸는데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인 글린카, 립스키 폴사코프, 무소르스키,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의 중요 작품들이 연주됐다.

송정명 총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뜻이 있어 23년 전에 이 학교를 세웠는데, 550여명이 배출돼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다. 음악과를 통해 이민사 회에 필요한 음악인들이 배출됐다. 12번째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기윤실 주최 건강교회 포럼과 사회봉사상이 CIU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은 건강교회포럼 모습, 사진 오른쪽 위는 사회봉사상 수상자 국제결혼선교전국연합회, 사진오른쪽 아래는 방주교회).

LA기윤실 건강교회포럼 교회건축 진단

사회봉사상에 방주교회, 국제결혼선교전국연합회

LA기윤실(공동대표 허성규, 흥진관)이 주최하는 제13회 건강교회 포럼이 ‘교회건축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8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 까지 캘리포니아인터내셔널대학교(CIU) 강당에서 개최됐다.

소를 신격화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출발이다. 교회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장소이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손경호 목사(보스톤 성령교회 담임, 실행위원)와 조만연 장로(북부장로교회, 실행위원)가 강사로 나서 주제발표를 했으며 박문규 학장(CIU, 실행위원)의 사회로 이용욱 목사(하나크리스천교회 담임)와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담임)가 패널로 나서 토론 했다.

“한인교회의 건축과 재정”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조만연 장로는 “신약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더 이상 물리적인 건물을 가리키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며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치셨다”라고 설명했다.

박상진 간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하나님 먼저, 건물 먼저?’라는 주제를 발표한 손경호 목사는 “오늘날 교회건축은 많은 부분 잘못된 동기로 실시된다”고 지적하고 “교회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약교회는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의미를 벗어났다. 일정한 장

한편 이날 LA기윤실이 수여하는 사회봉사상에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와 국제결혼선교전국연합회(담임 김민지 이사)가 받았다. 이상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단체, 개인을 알림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1천 달러가 수여됐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권희수 교무총장: 케미현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목) 오후 8:30(금)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영양예배: 오후 8:45			
뉴욕갯세마리교회 담임목사: 이지홍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9:0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45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월-목) 수요일예배: 오후 8: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사제기도회: 오전 8:30	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30(월-목)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8:45(월-금)	뉴욕주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목)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후 1:30 6부예배: 오후 3:00 7부예배: 오후 7:30 8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새벽 6:30(월-목)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월-목) 수요일예배: 오후 8:00(금)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현 주일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수요일예배: 오후 9:30	펜타일렌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혁명 주일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30	메디니교회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30(월-목)	어린이교회 담임목사: 김수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1부 기도회: 오전 8:30 2부 기도회: 오전 8:30 3부 기도회: 오전 10:45 4부 기도회: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근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영양예배: 오후 1:3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목회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수요일예배: 오후 9:30	윈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수요일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00	윈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수요일예배: 오후 9:30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파이름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30(월-금)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985-0009 ■ N.Y.: Tel. (718)986-4000 Fax: (718)9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985-0009 ■ N.Y.: Tel. (718)986-4000 Fax: (718)986-0074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남미지역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4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4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용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45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목회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명연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12:30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희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목회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전 8:30(월-목)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원근 목사 목회예배: 오전 8: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동부교계 기사판



2012년 "세계 장애인의 날"

우리서로잡은손 국제장애인선교회(I.M.D)가 주최하는 2012년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가 12월 1일(토) 오후 2시, 루즈벨트 아일랜드 골드워터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장애인의 날 및 성탄절" 행사 겸 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동 선교회가 UN DPI NGO 단체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4월 장애인의 날 "우리서로잡은손" 행사를 12월 세계장애인의날 행사로 하게 됐다. 장애인 병원 환자 400명, 봉사자 200명 총 600명이 참석하게 된다. 한편 동 병원은 2013년 문을 닫게 된다.

▲문의: (718)353-3791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ew York"

청년연합집회 "Blessing New York"이 12월 7일(금)부터 9일(주)까지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교협이 후원하는 이 집회는 뉴욕의 젊은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영적 공감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청장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집회 강사는 박수영 장로(자마, 코스타 강사)로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심층적 메시지가 전파된다. 일정은 금, 토요일 오후 8시, 주일은 오후 6시부터. 베이비시팅들이 준비되며 사역자/사역팀 부스를 설치해 각 사역을 홍보할 수 있다.

▲문의: info.planplay@gmail.com

뉴비전 청소년커뮤니티센터 군고구마 후원

뉴비전 청소년커뮤니티센터(대표 채왕국 목사)가 이번 겨울에도 군고구마 후원을 시작한다. 필리핀과 한아름 마켓 앞에서 군고구마를 판매해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 박스 35달러에서 10박스 300달러까지 후원금을 받고 있다. 동 센터는 중고 품가게(Thrift Shop)도 운영하고 있다.

다. www.nvcc.org

▲문의: (215)782-3789



뉴욕권사합창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성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수, 지휘 양재원) 제 11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일 "영광, 할렘루아"라는 주제로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안창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로 특별 준비했으며 소프라노 유필봉, 알토 박영경 씨와 협연했다.

씨즌, 피아노 21과 MOU

씨즌(대표 문석진 목사)은 지난 달 30일 피아노 21(대표 김상철 목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사의 기사,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 등을 상호 활용하며 홍보협력 등 다각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피아노21(www.pio21.net)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등의 절기에 맞춰 영상설교를 위한 자체제작 콘텐츠를 씨즌의 기독교인터넷신문 기독교뉴스(www.kidoknews.net)를 통해 뉴욕일원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피아노21은 첫 번째 선교영화 '잊혀진 가방'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화제를 몰고 올 영화 '중독'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독'은 마약,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 전 세계의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중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미국, 영국, 스페인, 인도, 한국 등 5개국에서 촬영한 로드다큐멘터리 영화다.

▲상영 문의: (347)538-1587 문석진 목사

뉴욕교협 39회기 출범... 이취임식

김종훈 회장 "교계화합에 최선"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제 39회기(회장 김종훈 목사)가 지난 9일 이취임식을 마치고 출범했다. 이날 이미 발표된 임원진 외에 각 분과위원회 명단도 발표했다(표 참조).

1부 예배는 김승희 목사 사회로, 시무기도 이병홍 목사, 성경봉독 이대연 장로, 특송 에이레네중창단, 말씀 장석진 목사("능력자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한 출발", 딤편1:12), 헌금기도 박마이클 목사, 헌금특송 박성하 전도사, 축도 최예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이취임식은 현영갑 목사 사회로, 기도 최창섭 목사, 이임사 양승호 목사, 교협기 인수인계, 축사 한창연 뉴욕한인회장, 김형길 부총영사, 박상천 뉴저지교협회장, 권번 방지각 목사, 취임인사 김종훈 목사,

이주의 장로, 위촉장 수여, 감사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목사는 "열린 귀를 가지고 여러 조언들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섬기면서 이루기를 다시 한번 결심했다"며, 요8:29에서 근거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협"이라는 주제로 교협을 이끌어 교포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협으로 창조과학탐사여행 추진 △청소년센터 등 중심으로 한 다음세대 신앙전수 △사회적 현안 문제 관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39회기 뉴욕교협은 총 86명에 이르는 임원회를 구성했다. 8명의 임원진 외에 12명의 협동총무, 분과위원장 34명, 특별위원장 28명과 3명의 감사, 이사장 등으로 역대 가장



뉴욕교협 회장단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임원선거 후보자 번호추첨을 마치고 후보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목사회 임원선거 후보자 번호추첨

부회장 1번/황동익 2번/노인수 3번/김영환 목사

뉴욕목사회 임원선거 후보자 발표 및 번호 추첨이 지난 7일 플러싱 북장동순두부에서 열려 3명의 부회장 후보 중 1번 황동익 목사(뉴욕비전교회), 2번 노인수 목사(뉴욕불기동교회), 3번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로 결정됐다. 회장후보는 최예식 목사(뉴욕복된교회).

선관위원장 신현택 목사(서기 김홍석 목사, 선관위원 이철희 목사가 함께 한 자리에서 4명의 후보는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가졌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학력(학위)에 관련된 서류사본과 이단행사 참여에 대한 해명 등에 대해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현택 목사는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뉴욕목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진아웃(3

번 이상 후보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총회에 선거제적으로 상정될 것"이라며 소급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다음은 각 후보 관련 정보다.

▲회장 후보
△최예식 목사(1947년생, KPCC): 넓은 포용력으로 좋은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화합하는 목사회

▲부회장 후보
△1번-황동익 목사(1946년생, ARPC): 좋은 관계유지, 목회자 개인발전 도모, 영적 회복 노력

△2번-노인수 목사(1948년생, 독립): 목사회 위상정립, 목사회를 안식처로, 목회정보제공

△3번-김영환 목사(1951년생, SBC): 회장 보조, 친목과 일치, 성령충만과 기도

(유원정 기자)

많은 임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현영갑 목사(리빙스톤교회)와 김홍석 목사(뉴욕능력교회)의 이름이 명시된 탄원서가 지난 7일 김종훈 회장에게 전달됐다. 내용은 총무 현영갑 목사의 교체 건.

현영갑 목사는 지난 2년 동안 서기(37, 38회기)와 선관위원장(37회기)을 역임해 분열 분위기에 있었던 뉴욕교협의 핵심에 있었다. 39회기

김종훈 회장에 화합의 기대를 건 회원들은 현영갑 목사가 총무로 임명되자 실망을 금치 못하고 결국 탄원서가 제출됐다.

유상열 목사는 "이번 탄원서로 현영갑 목사가 교체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회장 및 핵심자들이 한 회기 동안 부담을 안고 뉴욕교계에 화합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탄원서 사명은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임원		특별위원회	
회장: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부회장: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자문위원회: 방지각 목사	장학위원회: 양승호 목사
총무: 현영갑 목사(뉴욕순복음장로교회)	서기: 장경태 목사(뉴욕소망장로교회)	지도위원회: 김해중 목사	선기관리위원회: 김원기 목사
부서기: 김성태 목사(주님의교회)	회계: 이수원 장로(뉴욕순복음연합교회)	재정관리위원회: 이문구 목사	교람관리위원회: 현재홍 목사
부회계: 정대영 목사(퀸즈동부교회)		법규위원회: 이병준 목사	결혼상담지도위원회: 김정국 목사
합동총무		청소년지도위원회: 안창의 목사	중재위원회: 장석진 목사
양민석 목사(뉴욕한국인그레잇네교회)	조병광 목사(뉴욕새하늘교회)	해외선교위원회: 김남수 목사	공로상포상위원회: 박희소 목사
광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박태성 목사(뉴욕영광장로교회)	인공위원회: 김영식 목사	부총감사단위원회: 송병기 목사
조승수 목사(퀸즈성결교회)	안승백 목사(뉴욕유일교회)	지역협력위원회: 황동익 목사	목회연구위원회: 최정호 목사
박병준 목사(뉴욕신일교회)	김희복 목사(뉴욕만국교회)	목회자복지위원회: 황경일 목사	교단협력위원회: 김현태 목사
김종환 목사(뉴욕그리스장로교회)	김오성 목사(예수생명교회)	이단대책위원회: 최정호 목사	미저지교회위원회: 이승재 목사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백문현 목사(미주사랑교회)	대외관계특별위원회: 이희선 목사	목회사교류위원회: 이만호 목사
김사		미디어위원회: 윤세웅 목사	민족복음화위원회: 김재열 목사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	연합선교위원회: 이규성 목사	사업위원회: 이재덕 목사
이광도 장로(뉴욕동부교회)	이사장	신학유리위원회: 이광희 목사	
이주의 장로(뉴욕예일장로교회)			

애틀랜타지역교협 주최 이단대책세미나

한선희 목사, 신천지 신사도 인터콥 등 강의

대애틀랜타지역교회협의회 주최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단을 바로 알자'라는 주제로 가을특별성회를 열었다. 강사는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 예장미주합동총회 이단대책위원장).

실로암한인교회(담임 신윤일 목사)에서 3일간 저녁집회와 오전에 목회자세미나가 있었으며 5일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선희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애틀랜타 지역에 이단에 대한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의 영광이요, 참석하여 다짐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협 측은 "이번 세미나가 어느 개인이나 단체를 맹목적으로 비방이나 비난이 아닌 조목조목 파워포인트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성경적으로 비교 분석해줌으로 쉽고 고도로 알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통해 애틀랜타 지역에 경각심을 불러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협 산하 이단대책위원회 활동과는 별도로 전문 이단대책사역에 올인 할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선희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결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일명 신천지): 최근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깨지는 등 그 피해가 감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신사도운동(New Apostles Reformation): 최근 마치 15년 전에 돌풍을 일으켰던 빈야드 운동과 유사 △인터콥(대표 최바울): 공격적인 선교방법으로 인해 가는 곳마다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나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하고 나면 교회가 잠음이 생김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일명 안식교): 연장교육으로 아주 상세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중 강의를 했다.

(가사제공: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www.sbm.or.kr

크리스천이 아들로 살아가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목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영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성물 바른선교를 자랑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북권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어플을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뉴욕코탕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맨해튼: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부산서 첫 '나라와 교회위한 119기도대성회'

"한국교회, 갈보리 십자가로 희망·생명 제시해야"

부산지역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119 기도대성회를 갖고 부산지역 부흥회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간구했다. 9일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산기독교교회관과 기독교 역사관 건립, 부산 발전과 가덕 공항 유치, 대통령 선거, 북한동포 문제 등 지역 교계와 사회, 국가, 민족이 풀어야 할 현안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주 강사로 나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한국교회의 책임을 선포했다.

조 목사는 극한 정쟁과 경제적 위기 등으로 공허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갈보리 십자가로 희망과 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기도에 집중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사회가 겪는 분열과 대립은 창세기 때의 공허함, 혼돈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개인 가정 기업 사회가 깊은 공허와 혼돈에 빠져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창조 가능성에 넘치고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된다"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새로운 가정 교회 국가가 되기에 성령을 모셔들이고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경계하고 철저한 회개, 연합 일치를 통해 사회의 빛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최 측은 '나라와 교회'를 위한 부산 그리스도인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부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하며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 성장과 부흥을 위한 신실한 제자들로 거듭 나도록 기도하자"고 다짐했다.

성회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 성서회운동본부 부산홀리클럽 등 17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앙 선배들이 한국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구국기도회를 가졌던 것처럼 부산의 1800개 교회, 40여만 성도가 하나 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회장을 맡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종남(부산 순복음교정교회) 목사는 "성회에서 부산지역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북한 동포와 찢어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면서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간구했다"고 말했다.

성회에는 정필도 부산성서회운동본부 이사장, 장성만 21세기포럼 이사장,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허남식 부산시장 등 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여성목회자에 대한 편견 여성도가 가장 많다

장신대원 교수·학생 설문조사

신학대학원 교수와 신대원생 10명 중 4명은 "교회 내 여성들이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급의 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지난 5-6월 장신대 신대원생(428명)과 신대원 교수(46명) 등 모두 474명을 대상으로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지난 7일 서울 광장동 장신대에서 열린 '여성 목회자 후보생 교육·진로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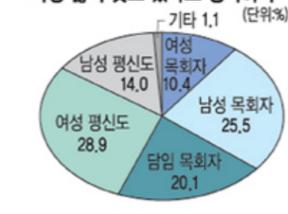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여성 평신도'를 꼽은 응답자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성 목회자(25.5%)'와 '담임 목회자(20.1%)', 여성 평신도(14.0%) 순이었다. 특히 여성 평신도를 포함한 '여성 목회자

(10.4%)'를 꼽은 응답률이 3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성 목회에 대한 교회 여성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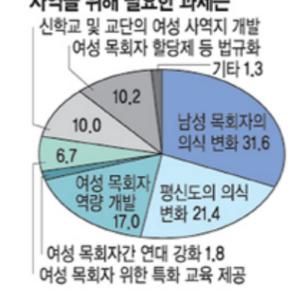
현재 신대원 교육과정이 여성 목회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시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가량(49.6%)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여성 목회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여성 목회 후보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 신설(28.1%), 교회 연계형 교육과정 설립(27.9%)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신대원생들이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교회 파트타임 및 대학원 진학'(26.2%)이 가장 많았고, 교회 전임사역(25.1%), 교회 밖 기관 전임사역(16.6%) 등이 뒤를 이었다.

양 교수는 "여성 목회자 문제는 신학교나 교단, 교회의 어느 한 영역만이 노력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개인과 교회, 신학교, 교

여성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여성목회자의 차별·제한없는 사역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단 등 모든 영역이 함께 공동의 전략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요교단 정책 탐구 (4) 예장 대신

예장 대신(총회장 황수원 목사) 교단은 올해 설립 51주년을 맞았다. 대신 교단은 현재 국내의 44개 노회와 2196개 교회가 있는 중형 교단으로 성장했다. 또한 19개 권역 56개국에 253개성 492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장로교단 중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 됐다.

대신 교단은 설립 이전부터 선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1950년대 한국장로교회 분열시대 이후 후발 주자로 출발했지만 교단 설립자인 김치선 목사는 그의 양부 영재형(L. Young) 선교사의 깊은 선교적 영향을 받았고 그의 도움에 힘입어 일본과 미국의 유학

주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총회는 교단 성장을 위한 새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135운동'과 '교회부흥성장 20만 전도운동'이다. 총회 임원과 구성원들은 최근 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단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황수원 총회장은 "대신 교단의 정통성과 끈끈한 자생력으로 다져진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교단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성숙한 총회, 이 민족의 장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주도해 나가는 대신 교단

교회	2196개
노회	44개
목사 수	2927명
교인 수	46만 4천명

(자료 : 예장 대신 총회)

개 교회를 상대로 전도훈련을 시켰다. 앞으로 각 교회 지원을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수료자 중 30여 교회를 선별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후원에 나선다. 이 운동은 대신 전 총회장인 박재열(서울 동선교회)

반세기 역사...국내·외 2196개 교회 거느린 중형 교단 '135 운동' '20만 전도운동' 2대 핵심 정책 전개 계획

을 통해 세계 신학과 교회 선교의 흐름을 파악했다. 광복 후 1948년 정병받은 서울 남대문교회 목회에서 "2만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한국 민족의 300만 구령 운동으로 세계를 섬기자"는 그의 메시지가 이를 반증한다.

대신 교단은 소위 '자생교단'으로 불린다. 한국장로교회의 분열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파로 대한신학교 졸업생의 진로 문제와 대한신학교가 직면했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정치사회적 상황이 중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누구도 의도하거나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한국장로교회 안에 새로운 교단을 설립하게 했고 그 교단을 통해 한국장로교회 정통 신앙의 한 축을 이끌어가도록 했던 것이다. 즉 대신 교단은 신학적 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신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정통신학의 계승을 자처하는 '작지만 강한 교단'으로

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신 교단은 '135운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교단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61년까지 1만 교회, 3만 기도 헌신자, 500만 성도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 선포다. 특히 교단사람 '3만 기도 헌신자 운동'을 전개해 총회와 노회, 그리고 지교회에 하나의 동맥으로 연결되는 '기도혁명'을 이를 계획한다.

대신 교단은 '교회부흥성장 20만 전도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46만여명인 교인 수를 20만명 더 전도하겠다는 것이다. 노회별로 전도 목표를 세우고 또 노회는 사찰별로 전도목표를 세워 전도를 통한 구체적인 전도운동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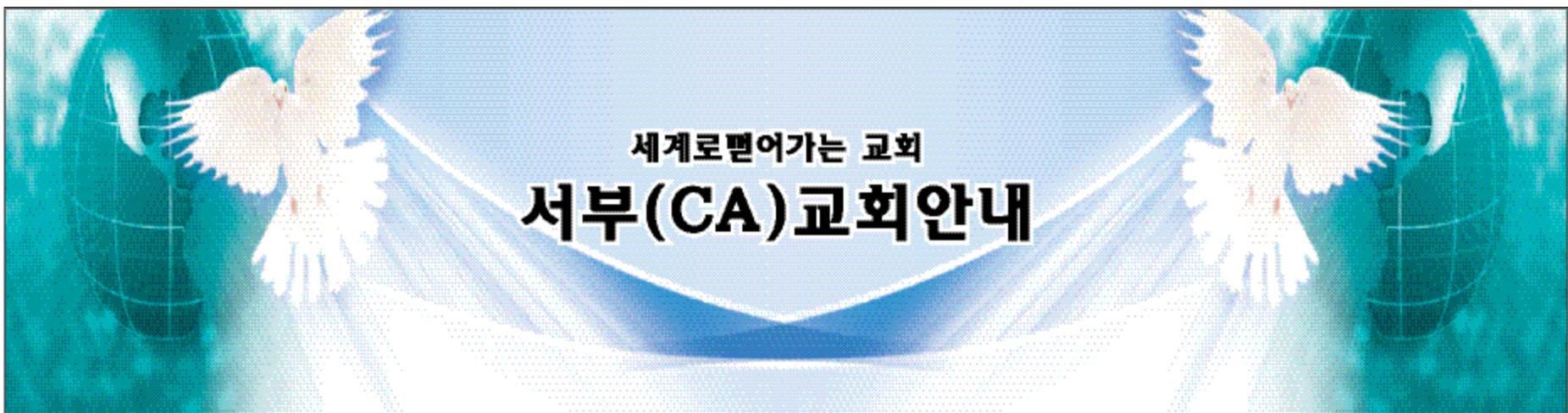
이 운동은 특히 작은교회살리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평이동을 통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한 축을 이끌어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자립 교회가 자립 교회로 부흥될 수 있도록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전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30개 교회를 포함해 지난 10년 동안 모두 1052

목사가 자비량으로 4억9000만원을 기부해 교단 부흥에 귀감이 되고 있다.

총회는 이밖에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총회회관의 마무리 작업, 즉 헌당을 목표로 삼고 있다. 총회회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세례교인 1인 1만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총회는 신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으고 있다. 교단의 내실 있는 성장을 기하기 위함이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안양 석수동 대한신대학원대학교, 총회신학교 등 총회 산하 신학교 3개를 일일화하는 문제가 총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대신 총회는 지난 9월 총회에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전 총회를 결의했다. 예장 대신의 기층위원장인 김요셉 목사는 지난 3월 창립한 한교연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총회는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에 대해서는 행정비유를 계속 유지기로 했다.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평일 2부예배: 오후 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gosainchurcho.org Tel: (714)297-0941, Fax: (714)297-0236 6941 Knoll Ave, Brea, CA 92625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신약)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www.nasunboon.com / www.nbcg.org Tel: (925)417-4443, Fax: (925)937-6496 1750 N. Edgewood St., L.A., CA 90027	나성열민문교회 담임목사 : 박희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10:30 주일 6부예배: 오후 3: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916)483-8264, Fax: (916)483-8911 1626 Rockline Blvd., L.A., CA 90067 www.lespond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7: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818)225-7822, Fax: (818)225-6520 1219 S. Peckin Ave., L.A., CA 90019 (Peckin/Fairfax)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경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818)225-7822, Fax: (818)225-6520 1219 S. Peckin Ave., L.A., CA 90019 (Peckin/Fairfax)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818)481-0941, Fax: (818)481-0280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1 (Lambert & Peckin)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8:00 주일 7부예배: 오후 8:0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916)481-0941, Fax: (916)481-0280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1 (Lambert & Peckin)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7: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www.leadchurch.org Tel: (916)481-0941, Fax: (916)481-0280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1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714)772-7777, Fax: (714)772-6777 1117 N. Stockton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714)772-7777, Fax: (714)772-6777 1571 S. Figueroa St., Garden CA 92648 www.dodong.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최백우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45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213)483-0125, Fax: (213)483-0975 1907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7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323)483-1234, Fax: (323)483-0919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담임목사 : 박영은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213)483-7722, Fax: (213)483-0919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상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818)732-0281, Fax: (818)732-0412 1302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7: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www.samsungchurcho.org Tel: (925)252-5911, Fax: (925)252-6044 507 S. Linden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714)297-0941, Fax: (714)297-0236 519 S. Western Ave., L.A., CA 90025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경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45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7: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www.mijuchurch.org Tel: (714)297-0941, Fax: (714)297-0236 1750 N. Edgewood St., L.A., CA 90027	매달인인교회 담임목사 : 손연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818)225-7822, Fax: (818)225-6520 1219 S. Peckin Ave., L.A., CA 90019 (Peckin/Fairfax)	민쿠버미라벨리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818)225-7822, Fax: (818)225-6520 1219 S. Peckin Ave., L.A., CA 90019 (Peckin/Fairfax)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범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818)225-7822, Fax: (818)225-6520 1219 S. Peckin Ave., L.A., CA 90019 (Peckin/Fairfax)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재경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818)225-7822, Fax: (818)225-6520 1219 S. Peckin Ave., L.A., CA 90019 (Peckin/Fairfax)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916)481-0941, Fax: (916)481-0280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916)481-0941, Fax: (916)481-0280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1	인디우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45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7: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916)481-0941, Fax: (916)481-0280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1	일배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함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주일 5부예배: 오전 11:45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www.1bchurcho.org Tel: (818)225-7822, Fax: (818)225-6520 1219 S. Peckin Ave., L.A., CA 90019 (Peckin/Fairfax)	오렌지카운티침례장로교회 담임목사 :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주일 5부예배: 오전 11:45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714)881-0225, Fax: (714)881-0225 8200 Blake Ave., Westminster, CA 92682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714)881-0225, Fax: (714)881-0225 8200 Blake Ave., Westminster, CA 92682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 7부예배: 오후 11:30 새가족: 오전 9:30(신약) 새가족: 오전 9:30(신약) Tel: (916)481-0941, Fax: (916)481-0280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1

가정사역 칼럼



이혼에 대한 연구 결과의 보고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대부분의 부부들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힘들 때 또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을 때 기대에 어긋날 때 "이혼해", "우리 잘못만났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곤 한다.

이런 극단적인 말이 오가는 처음에는 그 말에 대해 그리 신경을 쓰지 않다가도 반복적으로 듣다보면 점점 그 말을 신뢰하게 되고 이혼을 준비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거나 듣거나 하면 우리 뇌에서는 벌써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준비를 한다고 언어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말들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마치 가정 안에 잡초의 씨를 심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적절히 인내하고 노력하면 부부의 갈등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고된 바 있다. 미국 내 한 연구소(AV: Institute for American Value)에서 미 전국의 부부 5,232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생활이 원만치 못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상당수의 가정이 5년 이내에 행복을 되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 개인적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싫증 난 결혼 생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결혼생활의 갈등에 대한 치유책은 결코 이혼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동안 부부들의 문제를 도와온 저희의 경험으로는 부부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 상황에 적절히 개입해 줄 수 있는 '커플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커플 멘토가 갈등 있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도하며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그러한 역할이 되지 않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부부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주며 최소한 더 상대가 나빠지지 않게 지탱해 줄 수만 있어도 좋다.

다시 말해 어떤 특별한 처방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며 고비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부부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보면 여러 요인들로 관계가 다시 좋아 질 수 있

원만치 못한 부부, 결혼생활 유지하면 80%가 5년 내 행복 커플멘토 통한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기술 등 도움 효과적

인종과 나이 경제적 수준을 총망라하여 실시된 이 조사는 13가지 심리적 기준을 근거로 실시되었는데 이들 중 자신의 결혼이 불행하다고 답한 경우가 645쌍이었고 그들 중 167쌍이 5년 내에 이혼하거나 별거로 결혼 생활을 마감했으며 나머지 478쌍은 결혼 생활을 그대로 이어갔다. 그런데 5년 후 다시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별거나 이혼한 경우는 50%정도만 안정과 행복을 회복했다고 답한 반면, 불행하게 느꼈던 478쌍 가운데 80% 이상이 5년 이내에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대표적으로 열거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녀가 자라고 직장 생활이 안정되면서 기존의 심각한 불만이 점차 사소하게 여겨질 만큼 부부관계가 성숙하게 되었다.

둘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가 더 많이 노력하고 대화를 시도하였다.

다는 말이다. 그러나 커플 멘토 훈련을 받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다. 다뤄야 할 주제들은 의사소통기술, 갈등해결기술, 여가활동, 가정경제, 부부의 역할, 성, 가족 및 친구관계 등일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한 달에 한번 또는 2주에 한번 만나 한 가지 주제씩을 다루면 된다. 식사만담을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도움을 받는 커플들은 약속된 시간에 멘토 커플을 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좋은 부담감 속에 함부로 서로를 대하지 않게 된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 담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커플 멘토에 대한 준비를 조금만 하게 되면 많은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3-4세대가 변질되는 가정으로 인한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것이 될 것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복을 누리는 자 (잠14:20-35) 찬252장

사람들은 무엇을 더 많이 받아야만 된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미 받은 복을 계수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요? 첫째, 영적부요를 이웃에게 나누어줌으로서 누릴 수 있습니다(20-24). 부요자는 (1)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합니다(공홀)(21), 선을 도모하는 자(선)(22),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수고)(23) 자기 재물을 허비할 줄 아는 자(구제)(24)에게 친구가 많이 생기고(20) 복이 임하며(21) 인자와 진리의(22) 놀라운 유익이 찾아

옵니다(23). 둘째, 여호와 경외를 배움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경외신앙 곧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생명의 샘(27), 견고함(26), 그리고 왕적 영광(28)이 따릅니다(창 1:28). 그러나 이 신앙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의 영광은 빈 껍질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미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정은 경외심을 지키기 위해 수고함으로 복을 누릴 줄 알아야합니다.

화 생명 길을 경영하라 (잠15:1-18) 찬246장

생명길이란 생명을 길에 비유한 말인데 요14:6에 예수님을 길이라 했고 마7장에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이 놓였다고 말합니다. 첫째, 생명 길은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운운입니다(18).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는 말씀대로 생명을 가진 자는 운운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근면입니다. 19절에 게으른 자는 가시울타리가 길에 있지만 정직한 자는 대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

명의 길을 아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둘째, 이 길에는 경영이 필요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묘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22)고 한 것은 그 길은 수고를 통해 얻는 길임을 보입니다. 셋째, 생명 길을 바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세 위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1절, 명철자는 미련한 길을 바르게 하며 23절, 맞는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딱 맞는 인생은 바로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수 피조물의 영광 (잠15:19-33) 찬175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15:33)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 겸손인 것은 생활경험에서 나온 교훈이전,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허락한 길입니다. 어떤 점에서 겸손이 최고의 덕인가요? 첫째, 여호와 경외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 다하여 하나님과 구분 없이 안하무인식으로 사는 것은 빛바랜 옷과 같습니다. 교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생겨지지 않

니다. 둘째, 참된 지혜가 나오는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란 모든 생활방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 내는 삶을 가리킵니다. 교만은 "자기, 자기" 하다가 제 대로 꽃 하나 피어보지 못하고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합니다. 셋째, 피조물의 존귀함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이 피조물의 면류관임을 아는 자는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아 언제 어디서나 겸손 일관하여 약속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목 하나님의 주권 (잠16:1-17) 찬23장

인생을 바르게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바른 경영을 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15: 22,16:1). 바른 경영은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계획을 가리키며 철저하게 하나님경륜의 근거인 그의 사랑과 진리에 기초 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이 무엇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을 알아야합니다(1).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

신 경영을 믿어야 합니다. 롬8:28에 보인대로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확신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는 이런 경영을 통해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우리는 그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속히 말씀을 보내 구해주시실 것입니다.

금 겸손의 도 (잠16:18-33) 찬347장

겸손의 도를 가는 자란 어떤 자이며 겸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의 도를 가는 자란? 18-20절에 겸손에 대해 말하며 21-25절에는 지혜에 대해 말하기를 겸손이란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21). 겸손자란 지혜를 생명의 샘으로 삼는 자이며(22) 지식있는 입술을 가진 자이며(23) 양약과 꿀 송이와 같은 선한 말을 가진 자입니다(23). 겸손이란 생명의 길이며(25) 여호와

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반응입니다. 둘째,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교만이 패 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면 겸손한 마음은 성공의 선봉이요 겸손은 일어섬의 앞잡이 라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의 정복(탈취)보다 겸손한 마음이 더 복됩니다. 성령받은 신자는 성령의 인도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의 도를 따릅니다.

토 마음의 연단 (잠17:1-14) 찬441장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나 여호와 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잠17:3). 순수한 은금을 얻기 위해 그것을 도가니와 풀무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호와 는 경외하는 자를 마음의 연단을 위해 반드시 고난의 구덩이에 넣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진정한 경외신앙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기자는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 된 것은 고난당하기 전, 그릇 행한 것이 고난 후 바른

길로 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옴의 애매한 고난은 그를 정금처럼 만드는 기간이었고 요셉이 당한 고난 은 그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반드시 감당 할 수 있는 고난이 허락됩니다. 연단을 받게 하려는 것이지요. 일부러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금옥주의 는 비성경적이지만 주를 위해 받는 섭리적 고난은 어떤 것이든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라홍채 목사의 신간서적 안내

구약과 신약

본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하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망해 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과 성경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 66권을 총망라하여 주요 성경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고, 성경 각권의 핵심을 통해 한눈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인목을 갖게 해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으로 통해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믿지않을 사는 성도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시키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켜 준다. | 1면 30원 13000원 / 2면 30원 13000원



지금 이 시대의 말씀

본서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여러 성경말씀을 토대로 하여 현재 크리천들의 길지는 신앙을 일깨우는 예언의 메시지와 경 고의 일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 의 자세는 어떠한지 하며, 이 시대 마지막 사역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말씀을 통하여 상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교회가 세속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대에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케 감당할 수 있 도록 인도하는 안내서이다. | 412면 14000원



참신 이레

시편이 있으면 골이 있으면 이 세상도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오 는데 바로 참신 이레가 되는 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다니엘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 한을 정하였나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참신 이레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계 19:11-21) 이 세상은 골이 난다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미래라 하여 어떤 사람들이 중립의 태도를 띠 면서 살고 현실 세계에 무어 아무 생각 없이 허송세월하며 살 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끝 날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 하고 중립을 준비하는 신앙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156면 6000원



라홍채 목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학사)
- 미국 메트로 복음교회 13년 근무
- 미국 휴스턴 신학교
- 미국 메디나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메디나 신학교 박사과정 수료
- 미국 메디나 신학교 신학박사(Ph.D)
- 뉴욕으로 이주, 뉴욕만민교회(복음) 조사연구/평가자로(제4차)
- 현 뉴욕만민교회(복음) 담임
- 저서: 한국적 영혼전도론(아시아 지역연구원(역주))
- 조사연구평가자료(서해바다침묵(복음) 조사연구/평가자료(제4차))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경 신구약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단 이틀에 통달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성경을 빨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2012년 12월 4~5일(오전 10시부터~오후 4시)
식사 및 음료 제공 / 회비 1인당 7만원(책 4권 교재 1권 파우치포인트 포함)
강사: 라홍채 목사
장소: 백주년 기념관 제1연수실
Email: andy1@gmail.com
주최·신청: 문림출판사(02-747-1004)

한국 세미나 일정 및 교육 시간표 (2012년 12월 4~5일)

제1일차 2012년 12월 4일		제2일차 2012년 12월 5일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오전 세미나	오후 세미나
구약 제1강	신약 제1강	참신 이레 제1강	계시록 제1강
오전 10:00-11:00	오전 10:00-11:00	오전 10:00-11:00	오전 10:00-11:00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10분 휴식
구약 제2강	신약 제2강	참신 이레 제2강	계시록 제2강
오전 11:10-12:10	오전 11:10-12:10	오전 11:10-12:10	오전 11:10-12:10
점심시간	1일차 종료	점심시간	2일차 세미나 종료
12:10-1:00		12:10-1:00	

다민족 열린 음악회를 꿈꾸며....

이우진 권사 (울림선교합창단 총지휘)

지난달 21일 제 6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친 울림선교합창단. 이 합창단을 총지휘하며 이끌어가고 있는 이우진 권사가 본사를 방문, 내년에 있을 다민족 열린 음악회를 소개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여는 이우진 권사의 찬양사역의 역사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22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5-6년간 잠시 활동을 쉬다 지난 2005년 다시 사역을 부활시킨 이우진 권사는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찬양이라는 사명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찬양을 통해 불교에서 삼천배를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나 암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제 울림선교합창단은 교민들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울림평경철서를 돕고 미래 경관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적극 후원하게 된 것이다. 그 훈련생들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경찰학교를 마치고 일주일에 세 번씩 경찰서에서 훈련을 받고 있

는데 이들을 울림선교합창단이 1만 달러를 후원하기로 하고 이번 연주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자 이번 연주회 때 이 훈련생들이 미국국기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해 커뮤니티와 하나됨을 보여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우진 권사에게 이번 공연은 특별한 공연이었다. 본인도 단원들도 모든 스태프도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연도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회봉사상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마 15년 전부터 참전용사 위문, 양로병원 방문공연 등 그동안의 행보를 지켜보고 음악으로 사회에 덕을 끼친 일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라고 겸손을 표하



는 이우진 권사는 “이 상은 더욱 더 사회를 위해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음악회는 좀 더 폭을 넓혀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이 참여하는 ‘다민족 열린 음악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사람이 주는 상도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의 주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열심을 내 보겠습니다.”라며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을 내비쳤다.

▲문의: (213)663-5183

본·사·방·문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연목회

오는 18일(주) 오후 6시 남성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에서 추수감사예배 및 찬양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연목회(회장 정요한 목사) 임원들이 12일 오후 본사를 방문했다.

초창기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돌아가 회복된 미국을 꿈꾸며 추수감사를 마련한 연목회는 “연합 예배를 준비한 것은 연목회 식구들만이 아닌 온 교민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 물론 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드리지만 혹시 예배 참석을 못하신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13년 전 구성된 연목회는 지금까지 목회자특별세미나, 학술세미나, 친선골프대회, 음악회 등을 통해 회원 간의 믿음과 단결을 위해 활동을 해왔다.

함께 자리한 김영일 목사는 “연목회가 활성화돼 커뮤니티에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



앞줄 우측 회장 정요한 목사, 부회장 김영일 목사, 뒷줄 우측 서기 김철 목사, 총무 고재원 목사

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연목회를 오픈해서 예배를 광범위하게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지요. 동문들도 일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 외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회원들 가족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를 통해 나오는 헌금은 ‘햇빛재단’을 후원하게 된다.

▲문의: (213)487-3920 (이성자 기자)

감사의 계절... 전천후 신앙인 길러내자

2012년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의미 통해 풍성한 감사 나눠야

〈1면에서 계속〉

척박한 현실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라면 다른 사람이 합겨온 상황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것은 나눔이다. 추수감사절에 먹고 즐기는 잔치의 전통을 더해준 것은 인디언들이었다. 3일간 계속된 청교도들의 추수 축제에 인근의 왕파노악 인디언들은 수십 명이 동참하며 자신들의 추수 전통을 가져왔다. 인디언들의 고대 축제인 ‘니롬모(내어주기, 교환하기)’ 전통이었다. 인디언들은 그 전통대로 헐벗고 굶주린 백인 외지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나눠주며 추수의 기쁨을 함께 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수확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자신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는 사람 하나 없다면 황폐한 인생이다. 감사라는 마음의 열매는 배려와 나눔으로 얻어지는데 그 출발은 관심이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그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 또한 모든 약한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됐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 은혜를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해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 받은 은혜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당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활력이 넘쳐날 때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고 확신에 잘 때도 있고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다.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감사(感謝)란 숙고(熟考)한다는 말에서 기원한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곳에서

감사는 생겨나지 못한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깊이 숙고해보면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와 원인이 발견된다. 신앙인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다. 범사에 감사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마음에서 그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야 감사하는 마음은 생긴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에는 감사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깊어질 때 비로소 효성을 발휘하게 되듯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도 동일하다. 우리가 추수를 할 수 있어서만 감사해야 한다면 그런 단계의 감사는 미숙한 단계일 것이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없을 때 더욱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물질이 있을 때, 수확이 넉넉할 때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감사는 아니다. 우리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다.

감사란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떤 때든지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모든 여건에서 수확이 없다 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초신앙으로 가르쳐야 할 몫이다. 우리 모두 감사의 계절에 전천후적 신앙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제는 회복 중이지만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팍팍하다. 실직한 사람들에게 활짝 취업의 문이 열릴 때는 언제일지 아직도 앞이 안 보인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의 힘으로 사는 것이 지혜이다. 따뜻한 미소, 푸근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우울한 인생에 환풍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열(10)을 도울 수 없다고 도울 수 있는 하나(1)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별로 거들 게 없는 추수절이라도 사람들의 마음밭에서 추수하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야 한다. 마치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처럼...

〈편집부〉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나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한인과
히스패닉 연합

초청 부흥대성회 및 목회자 교회 성장세미나

주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초청강사

연예인 특별간증



홍성욱 목사
(인양제일교회 담임)



이태근 목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송채환 집사
(선인중앙교회 집사)

일시

저녁부흥대성회

2012년 12월 2일 (주) - 3일 (월) 오후 6시30분

교회성장세미나

2012년 12월 3일 (월) 오전 10시~오후 5시

(등록비 20불, 다양한 사역자료 제공, 선착순 한인 150명)

* 저녁 집회 후 한인과 히스패닉을 위한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이 있습니다
(교회와 봉사 단체를 위한 사랑의 쌀교환권 배부중)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공동주최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특별협찬 : CBS America, 미주복음방송 외 모든 기독교언론기관(Kcmusa.org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

한인주관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HOLY CITY MOVEMENT
500 Shatto Pl #315, LA, CA 90020

등록 및 문의처

Tel. 213-384-5232 / Fax. 213-559-7656

Happy Thanksgiving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찌어다 (시 105:1)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Tel.(323)939-7323
Fax.(323)939-1656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Tel. (213)413-1600
Fax.(213)413-1911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714)826-6245
Fax.(714)826-6187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41-20 Queens Blvd.,
Sunny side, NY 11104

Tel. (718)482-7788
Cell.(917)349-5631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목사: 박용덕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el. (714)401-9874
Fax.(562)947-1760

남가주왕성교회

담임목사: 안경찬

2500 Wilshire Blvd #700
L.A., CA 90057

Tel.(213)819-881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42-15 166St,
Flushing, NY 11358

Tel. (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뉴저지베다니교회

담임목사: 장동찬

491 Alps Rd,
Wayne, NJ 07470

웨인:(973)694-3880
포트라:(973)694-3880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8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벤엘장로교회

담임목사: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7-1733
Fax.(323)931-2836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501 S. I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Fax.(562)690-8044

사랏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363-5887
Fax.(818)368-9883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635-A Palolo Ave.,
Hon., HI 96816

Tel. (808)735-0011
Fax. (808)732-555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301 S. Kingsley Dr.2F-B
L.A., CA 90020

Tel. (213)245-4090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Tel. (718)310-7061
Tel. (718)310-7062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el. (909)388-2940
Fax.(909)338-2941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939-8599
Fax.(718)321-880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호성기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Tel. (610)828-6760
Fax.(610)260-13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호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와이안디옥침례교회

담임목사: 우동식

99-400 Aiea Heights Dr.,
Aiea, HI 96701

Tel. (808)488-7552
H.(808)625-4479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한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운영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739-8824
Fax : (213)739-8821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718)353-3159
Fax.(718)353-31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